

## “롯데쇼핑, 카테고리 킬러 사업 진출”

- 12월 6일 세계최대 완구전문점인 토이저러스와 라이선스 계약 체결
- 2008년 상반기 1호점 진출, 2012년까지 110호점으로 확대
- 단독점 및 백화점, 할인점 내 복합매장 형태
- 1호점 오픈 후 수년내 5천억원의 연매출 기대

12월 6일 롯데쇼핑(주)은 세계 최대 완구 전문점인 미국의 '토이저러스'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, 카테고리 킬러(Category killer) 사업에도 본격 진출한다.

이번 계약체결을 통해 롯데쇼핑은 국내에서 '토이저러스(Toys R us)', '토이박스(Toybox)' 등 관련브랜드 사용권 및 운영 노하우를 가지게 된다.

'토이저러스' 매장은 1천평 안팎으로 약 2만 5천에서 3만개의 상품을 취급하는 단독 매장이고, '토이박스'는 마트나 슈퍼 등에 스텝인숍(Shop in Shop)형태의 소규모 매장이다. 규모는 30~70평 규모로 토이저러스의 인기 완구 아이템이 집약돼 고객들의 쇼핑 편의성을 도모하고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.

금번에 계약체결 후 본사업에 배치될 당사 주요인력을 미국과 일본 현지에 파견해 전문적인 지식과 Know-how 습득 등 현장 교육을 실시한다. 또한 TRU에서 한국에 2년간 파견되는 미국 MD 전문가로부터 매장구성 계획 및 디자인, 점포운영 및 시스템 개발 등 매장 오픈관련 노하우를 지원 받아 08년 1호점 오픈을 계획하고 있다. 이를 위해 롯데마트 내에 별도의 사업부 조직과 인력을 신설할 계획이다.

08년 1호점 오픈을 시작으로 2012년까지 단독점포 20점, 토이박스 90점 등

---

총 110 개 점포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.

서울 및 수도권, 지방 광역시에는 영업면적 800~1,500 평 규모의 단독점, 롯데마트의 신규점 및 기존 대형점포에는 700 평 규모, 백화점 신규점에는 약 300 평 규모로 복합 개발된다. 기존 마트의 완구매장은 '토이박스'로 전환해 동업계와 차별화를 꾀한다는 전략이다. 또한 향후 복합쇼핑몰 사업의 주요 Anchor Tenant 로 활용함은 물론 백화점, 할인점 신규매장 오픈 시에도 복합출점 예정이다.

토이저러스 사업은 동업계와 차별화 된 매장과 연계 마케팅으로 집객에 큰 효과를 가져와 수년내 연매출 5 천억을 올리는 수익성과 성장성이 높은 사업으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보고 있다. 매출 외적으로도 직매입 및 단품관리 노하우를 습득해 다른 직매입 상품운영, 글로벌 소싱을 통한 상품 다양화와 이익율 개선 등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

롯데백화점 국제담당 이일민 이사는 "백화점, 할인점, 슈퍼, Fashion 전문점, 쇼핑몰, 홈쇼핑 등에 이어 카테고리 킬러 사업에도 진출하게 되었는데 교육열기 및 자녀를 위한 투자 등 국내시장 여건을 봤을 때 성공적인 사업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확신하며, 이로써 롯데는 유아동(토이저러스)- Young(영플라자,시네마)-Adult(백화점,할인점)로 이어지는 평생고객확보의 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"며 "해외 우수 상품 소싱 및 유통 선진국의 노하우를 전수 받아 글로벌 백화점으로서의 이미지 제고에도 큰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"고 말했다.

#### ☞ 토이저러스 개요

설립년도	1948 년
업태구분	세계 최대 완구 전문점 (Category Killer)
본 사	미국 뉴저지 (회장: Gerald L. Storch)
매출액	11 조원(미국포함 33 개국, 미국 900 점, 일본등 해외 643 점)
주요 취급상품	완구, 유아동용품, 스포츠용품, 교육용품 등